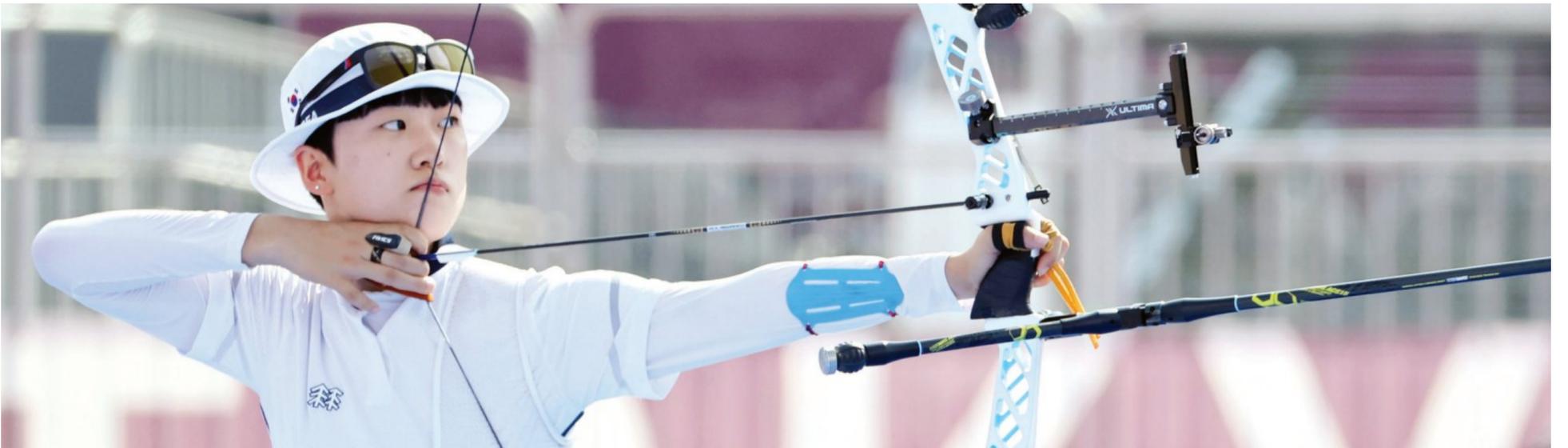


#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 안산이면 '안심'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이 25일 일본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 4강전 벨라루스와의 경기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 도쿄 올림픽 양궁 2관왕 안산

문산초·광주체중·고·광주여대  
광주가 낳은 Z세대 공사  
10년 넘게 한국 양궁 이끌 선수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오른 안산은 'Z세대 공사'의 선두주자이자 한국 양궁의 미래다. 양궁계는 '앞으로 10년 넘게 한국 양궁을 지탱할 젊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평가한다. 광주 출신인 안산은 감제덕만큼 감심장이고 콜한 성격이다. 집중력이 강하고 실수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안산의 강점이라고 지도자들은 입을 모은다.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신력이나 성격·성향은 훈련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그런 면에서 산이는 굉장히 밝고, 쾌활한 선수고, 실발(실수)한 것에 대해 빨리 잊어버린다"고 강조했다. 광주 문산초 4학년 때 처음으로 활을 잡은 안산은 양궁 지도자들의 지원 속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다. 타고난 재능과 광주 양궁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접목되면서 날개를 활짝 폈다. 광주체육중 3학년 때 문체부장관기에서 전 종목 우승(6관왕)을 달성해 양궁인들을 놀라게 한 안산은 2017년 광주체고에 진학하면서 기량이 만개했다. 유스세계선수권대회 혼성전 은메달을 시작으로 2018년 아시안컵 3차 개인전 은메달을 따냈다. 지난 2019년 7월 처음 출전한 독일 베를린 월드컵에서 개인, 혼성 2관왕에 올랐다. 2019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서는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 올림픽에서의 돌풍을 예고했다. 안산은 광주체고 2학년때 처음으로 8명을 선발



도쿄올림픽 양궁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김제덕(오른쪽)과 안산이 24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메달 수여식에서 메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국가대표에 뽑혔다. 고2 때 7위, 고3 때 4위로 세계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으나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도쿄대회를 앞두고 천신만고 끝에 선수단 1진에 합류했다. 올림픽 금메달 보다 어렵다는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안산은 4월 23일 원주양궁장에서 치러진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에서 여자선수 3명 가운데 3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은 "전날까지 3위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날 단 3발로 국가대표 1진에 턱걸이 했다"고 말했다.

광주여대에 입학한 안산은 김 감독의 지도 철학인 '한 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 훈련'을 집중적으로 지도 받았다. 김 감독은 "산이가 천부적인 재능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에 한 박자 빠른 슈팅 등 공격적인 스타일의 선수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은 보통 3~5초의 슈팅 타임을 잡지만, 산이는 1.5초면 승부를 낸다" "시위를 오래 잡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마련"이라며 "짧은 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산이의 최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세계 양궁의 중심 광주여대

기보배·최미선·안산 올림픽 금  
김성은 감독 지도력 돋보여

광주여자대학교가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한국 양궁의 중심에 섰다. 광주여대는 기보배(2012 런던올림픽 2관왕), 최미선(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지난 24일 안산의 도쿄올림픽 혼성 단체전 금메달까지 모두 3명의 신궁을 배출했다. 이로써 광주여대는 국내 실업·대학팀 최초로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학교가 됐다. 2000년 3월 6일 창단한 광주여대는 김성은 감독 특유의 지도철학으로 일찌감치 국내 여자대학 양궁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김 감독은 학교측의 전폭적인 지원 등으로 광주여대를 국가대표 산실로 만들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2014년 한국대학양궁협회 회장으로 대학양궁을 이끌고 있다. 이 총장은 광주여대 총장배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선수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감독의 시스템 양궁과 학교측의 지원으로 광주여대는 각종 국내대회는 물론 2003년 대구세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최미선의 개인전 금메달, 2005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진승연의 단체전 금메달

등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김 감독의 권유로 2006년 기보배가 입학하면서 광주여대 양궁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김 감독의 지도로 양궁에 눈을 뜬 기보배는 2010년 태극마크를 달고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2012 런던올림픽에서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올랐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개인전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당시 광주여대 재학생이던 최미선이 2위를 차지했다. 이후 기보배와 최미선은 이어 열린 2016 리우올림픽에서 여자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그리고 올해 도쿄올림픽 선발전을 3위로 통과한 안산이 도쿄에서 첫 금메달을 신고하며 광주여대는 국내 실업·대학팀 최초로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여대와 김 감독의 꿈은 2024 파리올림픽으로 향한다. 김 감독은 "항상 해왔던 그대로 소통하며,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배우며 선수들의 발전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궁 명문 광주여대의 자부심과 전통을 간직한 선수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여자 양궁, 30년 넘게 지킨 '명궁 철옹성'

1988 서울올림픽 이후 9연패  
금메달리스트 21명 배출

한국 여자양궁이 30년 넘게 아무도 넘지 못한 명궁의 철옹성을 구축했다.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 안산(광주여대)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25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를 물리치고 시상대 정상에 섰다. 서울 대회의 '원조 신궁' 김수녕부터 이번 대회 대표팀 막내 안산까지 총 21명의 한국 여공사만 단체전 금메달을 나눠 가졌다. 9연패는 특정 국가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최다 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케냐가 육상 장거리 장애물 경기에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9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간 바 있다. 미국도 남자 수영 400m 혼계영에 같은 횡수의 연속 금메달 기록을 세우며 최다 기록을 나눠 갖고 있다. 한국의 여공사들 외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9개의 여자단체 금메달은 한국 양궁의 원칙주의와 완벽주의가 빛어났다. 5년 전 리우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의 중심에 섰던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 중 누구도 도쿄행 티켓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여공사가 대한양궁협회의 원칙에 따라 계급장을 떼고 원점부터 대표 선발전을 치른 결과 올림픽 경험이 전무한 강재영, 장민희, 안산이 뽑혔다. 매년 새 얼굴이 무서운 성장세로 선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한국 양궁의 저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궁 결승전 승부는 한두 점 싸움이다. 여기서 여자 대표팀은 지난 30여 년간 늘 이겼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완벽주의의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다. 양궁협회는 지난 5월 유메노시마공원과 입지 조건이 비슷한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 바닷가 특별 훈련을 했다. 해안가에 위치해 바닷바람, 습도, 햇빛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훈련하며 도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경험했다.

진전선수촌에는 아예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 '세트'를 만들어 놓고 매일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 포적판 뒤에 전광판 2세트를 설치, 실전에서 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바람, 눈부심 등 상황을 만들어 미리 적응토록 했다. 포타라인의 위치, 셔터 소리, 장내 아나운서 등 미디어 환경을 똑같이 만들었고, 현지 방송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까지 시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관중으로 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0석의 빈 관람석까지 설치했는데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결국 관중을 받지 못한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은 진전선수촌과 다를 게 전혀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선수들이 모두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활을 쏠 때 한국 선수들만 제집처럼 편한 진전선수촌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른 셈이다. 26일에는 여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완벽주의' 훈련을 소화해 온 남자 대표팀이 단체전 2연패를 정조준한다. /연합뉴스



신유빈이 25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탁구 룩셈부르크 니시야리엔과의 경기에서 온 힘을 다해 포핸드 탑스핀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세 탁구 신동 신유빈, 58세 백전노장 꺾었다

'최연소'와 '최고령'의 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여자 탁구 단체전 2회전에서 17세 신유빈(대한항공)이 연륜을 이겼다. 한국 탁구 사상 최연소 국가대표인 2004년생 신유빈은 25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단체전 2회전에서 특별한 상대를 만났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1991년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하고 5년째 올림픽에 나선 니 시아 리안이 그 주인공이었다. 니 시아 리안은 1963년생, 신유빈보다 무려 41살이나 많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신유빈은 구석구석 테이블을 찌르면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간 니 시아 리안의 기세에 밀려 1세트에서 2점밖에 얻지 못했다. 신유빈은 2세트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듀스 랠리 끝에 승부를 원

점으로 돌렸지만 3세트에서도 5-11로 고전했다. 4세트를 11-7로 끝낸 신유빈은 여세를 몰아 5세트도 11-8로 끝내면서 연달아 2세트를 가져왔다. 하지만 베테랑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니 시아 리안이 11-8로 6세트를 가져가면서 '최연소'와 '최고령'의 승부는 마지막 7세트까지 이어졌다. 체력을 앞세운 신유빈의 움직임이 7세트에서 빛을 발했다. 강한 드라이브 공세로 7세트를 풀여간 신유빈은 11-5을 기록, 길었던 승부를 승리로 마무리했다. '41살 차 대결'이라는 이색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된 신유빈은 26일 홍콩의 후이 캄과 단체전 3라운드 경기를 갖고 16강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